

상 법

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[행정]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주식회사는 정관에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. 甲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B가 방만하게 경영함에 따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게 되었다. 甲회사의 최대주주인 A가 B의 경영성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라 A와 B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. 이에 대표이사 B는 이사회 결의 없이 B 자신과 그에게 우호적인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하였고, 그 결과 甲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. A는 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고 B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. (총 25점)

- 1) A는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甲회사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? (15점)
- 2) A가 B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甲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·등사를 청구한 경우 甲회사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? (10점)

제 2 문. 2020년 1월 10일 A는 甲생명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2억 원의 사망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최초보험료 2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인을 A, 수취인을 甲회사 대리점, 지급일을 2020년 2월 10일로 한 약속어음을 甲회사 대리점에 교부하였다. A의 이와 같은 어음 교부가 甲회사에 대한 최초보험료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? (15점)

제 3 문. A는 커피전문점 개업 준비에 착수한 B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. A는 1억 원을 출자하되 커피전문점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, B는 커피전문점의营业을 단독으로 수행하되, 매달 영업이익의 50%를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익명조합 계약을 A와 B 사이에 체결하였다. 그 후 B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. (총 10점)

- 1) A에게 대여한 5천만 원을 미쳐 변제받지 못한 X는 A가 B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지하고,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B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? (5점)
- 2) B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폐업하기 위해 채무를 정리하고 보니, A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. A와 B 사이의 손실분담비율에 관해 달리 약정이 없다고 할 때, 5천만 원의 손실에 대해 A는 추가적인 출자의무를 부담하는가? (5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